

## 왼쪽(左)과 오른쪽(右)의 숙명성

### Fatalistic Allelomorph between Left and Right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左와 右가 대립되는 사상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다.

먼저, 유럽의 역사에서 시작된 의식의 '좌익우익(左翼右翼)'이나 고대중국의 '좌조우사(左祖右社)',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의정, 우의정' 등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삼천 오백 년 전 번영하였던 중국 은(殷)나라시대의 고분을 보더라도 역시 좌우관계에 상하의 개념이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왕릉은 장대한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가로, 세로 10m에 깊이 8m에 이르는 구덩이를 파고 남측에는 경사진 도로를 설치하고 삼면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장례의식이 끝나면 공사에 관여하였던 모든 노동자를 산 제물로 바치면서 왕의 시신과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대지(大地)에 환원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상에는 아무런 구조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인데 위치를 표시하면 도굴 등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어떻게 하여서라도 다시 세상에 부활될 것을 믿은 당시의 권력자들은 지하 깊은 속에서 안도의 영원한 잠에 빠졌으리라. 이러한 왕릉의 주위에는 역시 강제적으로 생매장된 듯한 2~3기의 무덤들이 존재하여 최근에 발굴된 고분 속에서는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시키는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유골들의 배치가 오른쪽에는 남자 혹은 신분이 높은 자가 그리고 왼쪽에 여자 혹은 신분이 낮은 자로 단정할 수 있는 자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즉, 은나라 시대부터 이미 오른쪽이 우위라는 사상이 싹트고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좌우우열(左右優劣)의 사상은 주태(周泰)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철저해져 '주례효공(周禮孝工記)' 기를 보면 궁중에 있어서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왼쪽에는 조종묘(祖宗廟)를 받드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까지 출현해 좌우의 구별이 점점 엄격해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의 장형전(張衡傳)을 보면 '우사직서우언(右社稷西右言)'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북쪽에서 남쪽을 보면서 서쪽을 오른쪽, 동쪽을 왼쪽으로 규정하면서 '천자남면(天子南面)'으로 남쪽의 절대성과 함께 동서의 추종과 신체의 중립성에 대한 좌우의 합류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양태극양의생(易太極兩儀生)'이라 하는 음양설에도 일치하여 좌우, 동서, 음양이라는 상대적 이원(二元)이 독특한 우열론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도성의 계획이나 궁전의 배치에도 좌우의 우열이 크게 작용하여 궁전으로 향하는 대로의 중심 서쪽을 우경(右京), 동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숙명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에 경우에 얽혀놓고 보면 기막히다고 밖에 달리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해방 후 60여 년을 갈라져서 지낸 노릇도 따지고 보면  
이 묘한 개념의 산물이란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그 틀에 매여 가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고  
주변 강국에 눌러 늘 뒷북만 치는 것만 같은 공허함은 필자 만의 것이길 바라며  
조속히 우리의 숙명적 상황이 해소되어 그야말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도 되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

쪽을 좌경(左京)이라 하였다. 이 우경에는 정부의 고관이 살았고 좌경에는 일반인들이 살았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편에 사직동이 동편에 가회동이 위치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이르러 좌경우경(左京右京)은 혼탁한 양상으로 발전하여 본가는 우경인데 분가가 좌경에 있다든가 고관이 좌경에 산다던가 하는 복잡한 상태로 변해가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당시의 문벌정책에서 볼 때 혈족확장과 보존책의 일시적인 형태로 보여 우경에 살다 좌경으로 옮겨지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었고 직위가 높은 자가 좌경으로 강제적인 이주를 명받았을 때 '좌천(左遷)'이라는 단어가 발생하였다 한다. 그러나 좌청룡 우백호(左靑龍 右白虎)와 같이 용과 호랑이로 서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도 있다.

한나라에서는 고조 유방(高祖 劉邦)이 죽은 후 황후인 여(呂) 태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여씨 일족이 천하를 제멋대로 뒤흔들 당시 이 것에 불만을 품은 유씨 일족과 고조의 유신들은 군의 장성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에게 충성할 자는 좌단(左袒)하고 유씨에게 충성할 자는 우단(右袒)하라.' 여기서 단(袒)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 어깨뼈를 뽑는다는 뜻으로 당시의 권력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어깨뼈를 뽑으라면서 정의로운 선택에 오른쪽을, 불의에는 왼편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양에서조차도 오른쪽을 의미하는 'RIGHT' 라는 단어가 정의로움, 옳음 등의 뜻도 지니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같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숙명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경우에 얽혀놓고 보면 기막히다고 밖에 달리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해방 후 60여 년을 갈라져서 지낸 노릇도 따지고 보면 이 묘한 개념의 산물이란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그 틀에 매여 가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고 주변 강국에 눌러 늘 뒷북만 치는 것만 같은 공허함은 필자 만의 것이길 바라며 조속히 우리의 숙명적 상황이 해소되어 그야말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도 되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한다. ■